Macro

미국 고용: 바닥을 찾았나?

Economist 이정훈
jhoon.lee@daishin.com

- 미국 1 월 고용 +13.0 만 명 증가 서프라이즈, 실업률은 4.3%로 하락
- 지난해 연간 고용 증가 58 만 → 18 만 명 하향, 그러나 영향력 크지 않아
- 경기 민감 산업은 회복 조짐, 경기 변동에 의한 고용 악화 마무리 단계

예견된 고용 하향 조정 속 1 월 서프라이즈

미국 1 월 비농업 취업자는 +13.0 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(+5.0 만)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. 미국 고용이 10 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해 4 월 이후 처음이다. 실업률은 4.3%로 2 개월 연속 하락했다.

반면 시장의 또다른 관심사였던 고용 벤치마크 수정 결과는 역시나 하향 조정으로 나타났다. 2025 년 연간 고용 증감은 기존 +58.4 만 명 증가에서 +18.1 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(2025 년 3 월 기준 –89.8 만). 18 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.

일부 경기 민감 산업들의 고용 회복 조짐, 불확실성만 재발하지 않는다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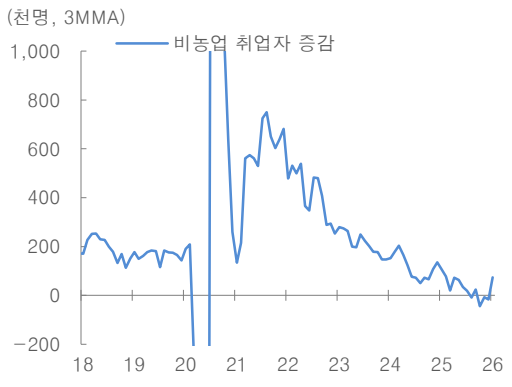
이전 데이터는 하향 조정된 반면 1 월 고용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해석에 다소 어려움이 생겼다. 하지만 연준의 스탠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추이에 조금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. 더군다나 고용 데이터의 하향 조정은 지난 몇 년간 반복되어 온 현상이기 때문에,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.

전체 민간 취업자 증가 폭은 +17.2 만 명인데, 이 중 헬스케어에서만 +12.4 만 명이 늘었다. 얼핏 보면 하방 압력이 여전히 커 보인다.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은 (+)로 돌아섰다. 건설업은 최근 구인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. 마찬가지로 경기에 민감한 전문/사업서비스 산업 고용도 증가했는데, 실업률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임시 서비스나 채용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2021 년 이후 처음으로 3 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.

사실 팬데믹 이후 1 월 고용의 계절적 변동성이 워낙 컸던 점과 최근 고용 지표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이번 데이터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. 하지만 그럼에도 경기 민감 부문의 고용이 회복될 조짐을 보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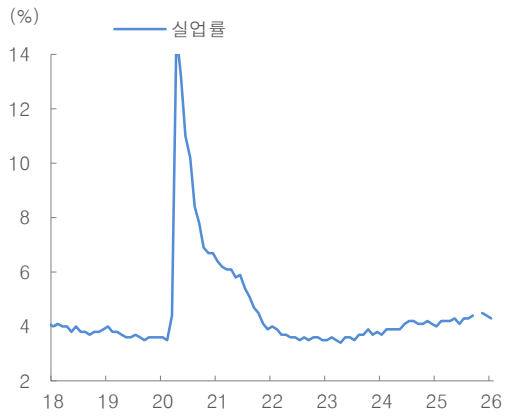
이번 발표로 연준의 인하 시점은 약간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, 트럼프가 정책 불확실성을 다시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(AI 의 구조적인 영향을 제외한)경기 변동에 의한 단기적인 고용 악화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

그림 1. 최근 3 개월 평균 취업자 +7.3 만 명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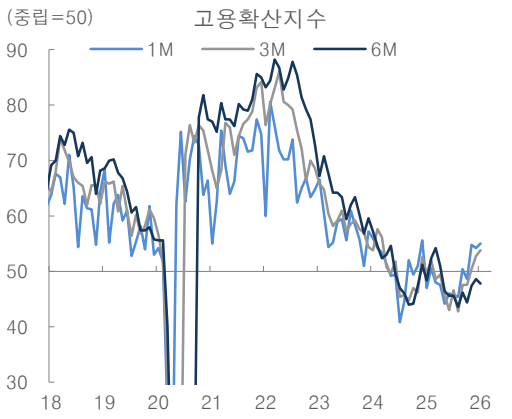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. 실업률 4.3%로 2 개월 연속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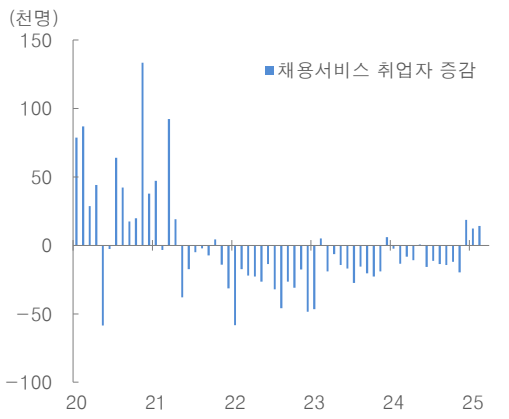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3. 고용확산지수는 지난해 4 분기 기점 반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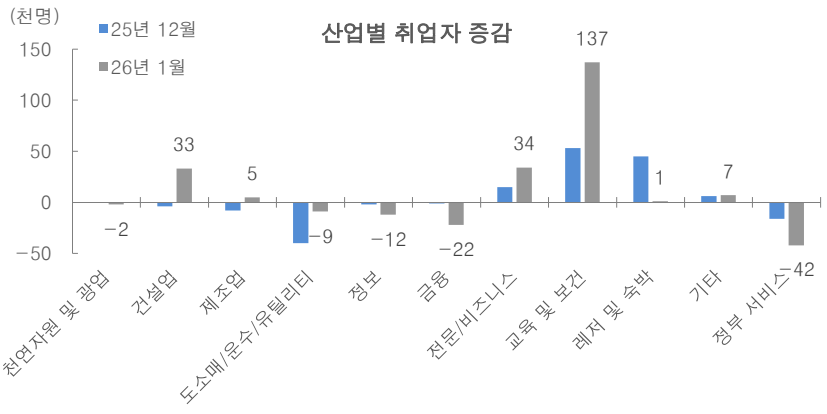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4. 채용서비스 취업자 3 개월 연속 증가


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5. 헬스케어 외 건설/제조/사업서비스 등에서 일자리 증가


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
(담당자:000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